유네스코 세계유산위 '성공 개최' 한뜻

범어사 · 국가유산청, 협력 논의
유기적 협력망 구축 '재확인'
각국 대표단에 사찰음식 만찬
"韓 불교문화 진수 선뵐 것"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hasm77@hanmail.net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5월 28일 금정총림 범어사를 찾아 방장 정여 대종사와 주지 정오 스님을 차례로 예방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범어사

오는 7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를 앞두고, 정부와 불교계가 한국 전통문화의 세계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행사 준비기획단은 5월 28일 부산 금정총림 범어사를 찾아 주지 정오 스님의 안내로 경내를 순례한 뒤, 방장 정여 대종사를 예방해 대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예방은 전 세계에서 모이는 위원회 참가자들을 위해 범어사가 사찰음식 만찬과 전통문화 체험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한 데 대한 감사를 전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은 준비기획단 일행을 경내 주요 전각과 수행 공간인 금어선원 등을 직접 안내했다. 일행은 대웅전과 약사전을 비롯해 근현대 한국불교 선지식인 동산 스님의 사리가 모셔진 부도를 참배하며 불교문화유산의 가치를 되새겼다.

정오 스님은 세계유산위원회가 부산에서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만찬 행사를 비롯한 다방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문화유산 보존에 힘쓰는 국가유산청의 노고에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허 청장 일행은 방장 정여 대종사를 예방했다. 정여 스님은 허 청장에게 맑고 티 없는 마음가짐을 뜻하는 '청청무애(淸淸無礙)'라는 문구가 적힌 전통 한지 부채를 선물하며 국가적 행사를 준비하는 실무진을 격려했다.

정여 스님은 천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전통을 수호해 온 범어사의 역사를 언급하며, 국가유산청도 우리 고유의 문화를 세계 무대에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범어사 역시 불교문화 홍보에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겠다는 뜻도 함께 전했다.

이에 허 청장은 "이번 위원회 일정 중 범어사에서 진행될 사찰음식 만찬이 각국 대표단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국 사찰이 간직한 고유의 고요함과 높은 수준의 정신문화를 전 세계에 선보이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범어사 방문 일정에는 조유장 부산시 문화체육국장 등 20여 명의 관계자가 동참해 정부와 지자체 및 종단이 함께하는 유기적인 협력망을 재확인했다.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오는 7월 13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다.

한편, 범어사 비오마인드가 지역 의료기관인 대동병원 및 대동대학교와 손잡고 부산을 세계적 웰니스·의료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협력에 나섰다. 범어사는 5월 29일 범어사 경내 주지실에서 대동병원 및 대동대학교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을 통한 웰니스·의료관광 활성화와 인재 양성, 지역사회 건강 증진을 위한 공동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한불교종정協, 아·태전쟁 희생자 추모식

5월 31일, 양산 불광사서
극락왕생 · 세계 평화 발원



대한불교종정협의회(회장 청봉 스님·대원불교조계종 종정)는 5월 31일 양산 불광사 대웅전에서 '제28회 아시아·태평양전쟁 한국인 희생자 추모식'을 봉행했다.

추모식에는 봉행 증명 법주인 청봉 스님을 비롯해 승정원장 원명 스님, 석무오 스님, 석법진 스님, 석청진 스님을 비롯해 대원불교조계종과 청봉문도회 스님 등 사부대중이 참석해 아시아태평양전쟁으로 희생된 한국인 영가 2만1709위의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회장 청봉 스님은 추도법어에서 "오늘 봉행하는 추모식은 아시아태평양전쟁으로 희생된 한국인 영가 2만1709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자리"라며 "비록 행사는 간소하게 봉행됐지만 참석 대중의 정성과 공덕이 영가들에게 회향돼 모두 좋은 곳에 태어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전쟁 당시 오대산 상원사를 지켜낸 한암 스님의 일화를 소개하며 "수행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부처님 법과 자신의 책임을 지켜야 한다"며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평화를 발원하는 오늘의 추모재를 계기로 모두가 자비와 지혜의 삶을 실천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추모재 이후 참석 대중은 영령들의 극락왕생과 세계 평화, 국민 화합을 발원하며 정성을 모아 천도재를 봉행했다.

대한불교종정협의회는 매년 아시아태평양전쟁 희생자 추모식을 봉행하며 전쟁으로 희생된 영령들의 극락왕생과 세계 평화, 국민 화합을 발원하고 있다.

한편, 오는 6월 10일에는 제15대 대한불교종정협의회장 청봉 스님이 주재하는 첫 회의가 대전 종정협의회 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도심 포교 한 세기 '혜원정사 100년사' 봉정식

5월 31일, 혜원정사 경내 특설무대
고산 스님 개산 원력 등 사료 담아
원허 스님 주석 30년 발자취 조명



부산 혜원정사가 창건 100주년과 개산 50주년을 맞아 지난 한 세기의 수행과 포교 역사를 집대성한 〈혜원정사 100년사-개산 50년, 가꾸어 온 30년〉을 발간하고 5월 31일 삼보전에 봉정했다.

부산의 대표적 도심포교 도량인 혜원정사가 창건 100주년과 개산 50주년을 맞아 지난 한 세기의 수행과 포교 역사를 집대성한 〈혜원정사 100년사-개산 50년, 가꾸어 온 30년〉을 발간하고 삼보전에 봉정했다.

혜원정사(주지 인호 스님)는 5월 31일 경내 대웅전 앞 특설무대에서 '혜원정사 100년사 봉정법회'를 봉행하고 창건 100주년, 개산 50주년, 원허 스님 주석 3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며 새로운 백 년을 향한 원력을 다졌다.

이날 법회에는 회주 원허 스님과 주지 인호 스님을 비롯해 고산문도회 문장 영담 대종사, 쌍계사 주지 지현 스님, 쌍계사 승가대학장 대각 스님, 쌍계사 사암연합회장 이암 스님, 중앙종회의원 석산 스님, 미타선원 선원장 하림 스님, 천흥사 성전 스님 등 문도 스님들과 신도들이 동참했다.

원허 스님은 발간사에서 "이 책은 단순한 기록집이 아니라 수행자와 불자들의 신심과 공덕, 그리고 혜원정사가 걸어온 수행과 전법의 정신을 담아낸 역사서"라며 "지난 백 년을 디딤돌 삼아 앞으로도 자비와 지혜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도량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혜원정사와 인연을 맺어온 모든 이들이 이 책을 통해 도량의 가치와 역사를 함께 나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회에서는 도록 제작을 맡은 오세룡 담앤북스 대표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혜원정사 백 년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는 데 기여한 공로를 치하했다.

이날 삼보전에 봉정된 〈혜원정사 100년사-개산 50년, 가꾸어 온 30년〉은 혜원정사가 펴내고 담앤북스가 제작한 396쪽 분량의 양장본 도록으로, 혜원정사의 100년 역사를 풍부한 사진과 사료를 통해 입체적으로 조명한 기록물이다.

책은 1925년 연산동 묘봉산 자락에서 김덕만 거사의 작은 발원으로 시작된 혜원정사의 태동기부터 고산당 혜원 대선사의 개산 원력, 그리고 원허 스님이 이끌어 온 현대적 도심포교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또한 불사와 법회, 신행단체 활동, 청소년 포교, 복지사업, 문화사업 등 혜원정사가 걸어온 수행과 포교, 사회실천의 발자취를 한눈에 살필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고산 대선사의 개산 당시 자료와 불사 사진, 친필 모연문과 상량문 등 그동안 외부에 널리 공개되지 않았던 사료를 수록해 역사적 가치를 높였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밀양 표충사, 소방공무원 심신 돌본다

5월 28일, 밀양소방서와 MOU
템플스테이 등 프로그램 제공



밀양 표충사(주지 진각 스님)가 소방공무원의 심신 안정을 돌보기 위해 템플스테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표충사는 5월 28일 경내에서 밀양소방서와 소방공무원의 심신안정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각종 재난 현장과 구조·구급 활동 과정에서 누적되는 소방공무원들의 정신적·육체적 피로를 완화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앞으로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템플스테이 시설 및 사찰 체험 프로그램 제공, 체험 참여자 지원 및 운영 협조, 소방공무원 심신안정 프로그램 활성화 등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밀양소방서는 오는 6월부터 8월까지 직원을 중심으로 약 33명이 참여하는 1박 2일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예불과 사경, 명상, 계곡길 걷기 등 다양한 산사 체험을 통해 몸과 마음을 돌보는 시간을 갖게 된다.

진각 스님은 인사말에서 "각종 재난 현장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소방공무원들의 정신건강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소방공무원들이 자연환경이 아름다운 표충사에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소중한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보욱 밀양소방서장은 "소방공무원들은 여러 스트레스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 협약이 직원들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더욱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생명나눔 부산 제18회 백일장 시상

양서준 학생 등 28명 수상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심산 스님)는 5월 31일 부산 영광도서 9층에서 '제18회 생명나눔 시·산문 백일장 시상식'을 개최했다.

대상인 부산광역시장상은 해동고 양서준 학생과 해동중 김연우 학생, 녹산중 김보민 학생이 수상했다. 금상인 부산광역시교육감상은 해동고 박시현 학생과 해동중 최지아 학생에게 돌아갔다.

또 은상인 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장상은 해동고 최여름 학생과 금정중 송민중 학생이,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장상은 녹산중 김수민 학생이 각각 수상하는 등 총 28명의 학생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범어사 대웅전 벽화, 1713년 조성된 3차원 불국토"

김미경 유산청 문화유산감정위원
5월 29일 불화 연구 학술대회서
'조선 불화의 전통과 변용' 발표



사진 제공=범어사 성보박물관

올해 보물로 지정 예고된 범어사 대웅전 벽화가 1713년에 조성된 3차원의 입체적 '불국토'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김미경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감정위원은 범어사 성보박물관과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이 5월 29일 개최한 '고려·조선 불화 연구의 현재' 학술대회에서 '조선 불화의 전통과 변용 : 범어사 대웅전 벽화와 관음보살도'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학술대회는 고려 및 조선시대 불화에 관한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국내외 연구자 간의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은 문헌 고증과 도상 분석을 통해 범어사 대웅전 벽화의 기본 조성 시기를 1713년으로 추정했다. 나아가 이 벽화가 단순한 장식을 넘어 전각 전체를 하나의 우주로 탈바꿈시키는 핵심 요소임을 확언했다.

그 근거로는 1713년 작성된 〈범어사법당중창겸단확기문〉의 기록을 제시했다. 또한 현재 남아있는 벽화의 하부 채색층과 구도가 18세기 초 화풍을 간직하고 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특히 출입 동선과 가까운 건물 앞쪽 공간(退間, 퇴간)에 그려진 관음보살도는 편년을 증명하는 시각적 자료다. 그림 속 정병의 형태, 구슬 무늬 장식, 선재동자의 옷차림 등이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 유행 양식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이어 김 위원은 범어사 대웅전이 3차원의 입체적인 불국토를 구현한 공간임을 역설했다. 중앙 불단의 삼세불(과거·현재·미래)이 종적(시간) 축을 형성하고, 좌우 측벽의 약사여래 및 아미타여래 벽화가 횡적(공간) 축으로 결합한다. 이 십자형 구조를 통해 전각 내부가 우주적 질서를 체험하는 공간으로 완성되었다는 설명이다.

범어사 성보박물관장 정오 스님은 축사를 통해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은 과거를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오늘의 정신을 미래에 전하는 가치 있는 일"이라며 "특히 김 위원이 올해 보물로 지정예고된 범어사 대웅전 벽화를 다루어 주신 것은 범어사로서 더없이 기쁜 일이며, 이를 계기로 관련 연구가 한층 심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혜 석당박물관장은 "이번 행사는 대학과 사찰이 긴밀히 협력해 지역 문화유산 연구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훌륭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연구와 국제적인 학술교류를 꾸준히 이어가며 문화유산 연구의 지평을 확장하고, 지역 문화유산의 글로벌 인지도를 더욱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연꽃문화제, 대상 김지호·김나윤 학생

5월 27일, 양정청소년수련관서



사진 제공=동련

사단법인 동련 부산지부(회장 효산 스님)는 5월 27일 부산 양정청소년수련관 7층 대강당에서 '제42회 부산연꽃문화제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은 지난 5월 16일 부산시민공원 다솜광장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 '가족', '행복'을 주제로 열린 본 행사의 결과를 축하하고 어린이들의 성취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행사에는 현장 참여와 공모를 통해 총 514명(그리기 476명, 글짓기 38명)의 어린이가 참여했다.

대상(부산광역시장상)은 그리기 부문에 출품한 김지호(사하초 6) 어린이와 글짓기 부문의 김나윤(두실초 1) 어린이에게 돌아갔다.

대상을 제외한 수상 내역도 풍성하게 채워졌다. 부산교육청상 등을 포함한 특별상 부문에서 6명, 조계종 범어사상 등을 포함한 최우수상 부문에서 8명, BTN불교TV 및 BBS 부산불교방송상 등을 포함한 우수상 부문에서 10명의 어린이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밖에도 그리기 부문 45명, 글짓기 부문 16명의 어린이가 장려상을 받으며, 대상을 포함해 총 87명의 어린이가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사단법인 동련 부산지부 회장 효산 스님은 "연꽃문화제에 참여해 도화지와 원고지에 각자의 맑고 순수한 동심을 담아내어 준 모든 어린이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작은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나중에 큰 것도 이룰 수 있다. 이번 대회를 통해 느낀 성취감과 예술적 경험이 훗날 세상을 밝게 비추는 밑거름이 되길 바라며, 내년에도 많은 어린이들이 참가해 자신의 꿈과 재능을 마음껏 펼쳐나가기를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